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 연구단 ·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공동 주최 2022년도 가을 국내학술대회

모시는 글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가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 여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유행의 조짐이 있었고, 많은 비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심각했었습니다. 이제 불안과 염려의 여름을 보내며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집단 지성의 학술향연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는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과 충남대 유학연구소가 9월 23일(금요일)에 “주체, 타자, 그리고 유교적인 것”이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합니다.

근대 서양철학 분야의 핵심 키워드는 ‘이성 주체’였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은 물론 세계를 정립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나 구조주의라는 철학적 사조 이후 ‘이성 주체’는 오히려 ‘구조’라는 타자에 의해 정립되는 주체가 되었고, ‘이성 주체’의 주체성은 해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주체의 지위와 역할은 멈추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그 주체성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주체와 타자라는 개념을 새롭게 구상하고, 그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수는 없을까요? 근대 서양철학의 주체에 대한 아포리아에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유가의 적극적인 철학적 개입과 만남을 시도할 것입니다.

본 학술대회는 “주체, 타자, 그리고 유교적인 것”을 탐사하기 위해 제1부에서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 문제들, 제2부에서는 주체와 타자의 개념연구로 나누어 학술대회 일정에 따라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것입니다.

제1부 주체와 타자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양명학의 ‘양지주체’와 ‘타자’, 리코르와 레비나스의 철학적 관점에서 본 제3자로서의 토막민, 그리고 남당 한원진과 외암 이간의 ‘인물성론’을 통해 본 주체와 타자인식을 각각 탐색합니다. 제2부 주체와 타자의 개념연구에서는 ‘세 개의 거울’이라는 타자와 주체 개념, 자아 개념을 매개로 한 주체와 타자의 개념, 그리고 무의식 주체와 성심지묘 주체를 통한 공백 주체 개념을 각각 탐사하면서 서양철학과 유가철학이 조우하는 장을 마련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근대 서구의 의식 주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새로운 주체와 타자에 대한 개념이 도출되고, 그 관계가 재설정됨으로써 향후 동서철학연구에 학문적 기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대면 회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온라인 회의실을 통한 비대면 회의 역시 병행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단장 변주승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소장 김세경